

## 미국의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전망



김창록  
〈국제금융센터 소장〉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전체에 파급되고 있다. 미국의 GDP 증가율은 작년 2/4분기 연 5.6%에서 3/4분기에는 2.2%로 하락하였고 4/4분기에는 1.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일본,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유럽지역의 경제성장도 상당폭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로 인해 대미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특히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한국의 GDP 증가율은 작년 3/4분기 연 9.2%에서 4/4분기에는 4.6%로 급락하였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이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작년 3/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6.5%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6.1%로 급락하였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데 따른 영향이 1분기 후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일본 및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출부진 및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어서 한국의 수출부진을 초래한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4/4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됨에 따라 3월에는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다.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주가하락 및 원화약세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도 상당부분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내 주가 하락의 원인과 관련하여 작년부턴 미국 나스닥 주가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미국 IT산업의 성장둔화에 따라 나스닥 주가가 작년 1/4분기 이후 대폭 하락하게 되었고 반도체, 컴퓨터 등 IT관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

국의 주가도 대폭 하락하게 되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작년 중 코스닥지수와 종합주가지수의 하락률이 각각 79.5%와 50.1%로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금년 들어 1월중에는 한국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주가가 하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2월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작년 1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원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국내 물가가 불안하게 된 데에도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흑자 및 해외 자본유입 등으로 인해 외환의 초과공급 기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외환의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중반 이후 원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일본 엔화가 약세를 유지한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엔화약세의 원인이 된 이유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부채가 GDP의 125%에 달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일본은행이 통화공급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으로 복귀하였지만 금리인하의 효과가 연 0.25% 포인트에 불과하여 경기진작의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10월부터 일본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증대를 통한 일본의 불황탈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볼 때 국내 경제성둔화, 주가하락과 원화 약세에 따른 금융불안 및 물가불안 등 제반 경제문제들이 해외요인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증가, 경제성장 회복으로 이어지고 주가상승 및 환율안정에 따라 금융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연준을 중심으로 한 낙관론자들은 금리인하 및 세금감면 등으로 인한 경기진작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달러강세에 따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그간 영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비제조업의 위축 및 실업증가에 따라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신뢰지수 등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대폭적인 주가하락에 따른 가계의 자산손실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미국의 경기가 빨라야 금년 4/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같이 국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극히 유동적인 만큼 이를 포함한 해외경제의 상황변동을 예의주시하는 상시 감시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시경제정책은 대외여건의 변화에 상응하여 신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